

『江都志』와 『重訂南漢志』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 검토 *

허태구 **

-
- | | |
|---------------|-----------------|
| 1. 머리말 | 3. 洪敬謨의 『重訂南漢志』 |
| 2. 李衡祥의 『江都志』 | 4. 맷음말 |
-

초록: 이 논문은 『江都志』와 『重訂南漢志』에 수록된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특징과 성격 등을 고찰한 연구이다. 李衡祥은 강화도의 인문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한편, 保障處로서 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도지』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군사나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그는 미 버클리대 소장본 계열의 『江都錄』을 典據資料로 활용하여 『강도지』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을 정리하였다. 金塗·金慶徵 부자에 대한 평가는 당시 척화론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따랐다. 다른 관련 기록들에 비해, 『강도지』에는 강화도 함락 전후의 戰況과 殉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왕실 관련 인사들의 비난받을 만한 행적은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다. 이형상이 제안한 강화도 守禦策의 일부는 실현 가능성의 회박한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洪敬謨는 본인의 역사지리적 관심, 廣州 留守로서의 책임 경험을 계기로 하여 『남한중정지』를 편찬하였다. 병자호란 관련 기록이 집중 수록된 「城史」 항목은 『燃藜室記述』과 그 인용 사료를 典據資料로써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城史」는 남한산성이란 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병자호란의 여러 사건을 상세히 조망하였다. 그러나, 다른 관찬 사료와는 달리 朝廷의 상세한 논의와 대응, 朝·清 간의 교섭 내용 등을 대폭 생략하였다. 반면, 농성군의 전투 상황, 성 안팎의 정황, 인조의 愛民 행적 등은 가능한 풍부하게 서술하였다. 김류와 주화파 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병자호란 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핵심어 : 병자호란, 李衡祥, 『江都志』, 洪敬謨, 『重訂南漢志』, 典據資料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 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2).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조교수.

1. 머리말

518년에 걸친 조선 왕조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임진·병자의 兩亂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큰 傷痕을 남긴 전쟁이었다. 특히 병자호란은 三南 지역이 주요 戰場에 포함되지 않은 채로 단 기간 내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異民族의 君主에게 국왕이 성문을 열고 나아가 직접 항복을 했다는 점에서 事大의 名分과 義理를 立國의 근본이라 서슴지 않고 외치던¹⁾ 조선의 지배층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어진 1644년 청의 入關은 그들에게 당시 보편 문명의 담지자였던 명의 소멸을 의미하는 역사적 대사건이었다.²⁾

이후 조선 내에서 병자호란의 기억은 실록을 비롯한 여러 官撰 연대기나 기록, 여러 사대부의 文集, 實記類 문학이나 소설·민담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소비되었다.³⁾ 특정한 체제를 갖는 지리지의 특성상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의 기억은 주로 전적지를 중심으로 「節義」, 「烈女」, 「關防」 등의 항목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⁴⁾

그런데, 특이하게도 李衡祥(1653~1733)의 『江都志』와 洪敬謨(1774~1851)의 『重訂南漢志』는 상당한 분량으로 병자호란의 역사만을 서술한 항목을 두고 있어 주목

1)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9월 庚申(19일) “趙贊曰 和事是非 不須多辯 但自丁卯至今十年 少無自強之策 今若更修和好 日就委靡 則終亦必亡後已 況我國以尊中國 攢夷狄爲立國之本 在昏朝途河瑞國 往來虜中 反正之初 數罪昏朝中一概 卽此耳 今若更與僭虜通好 則人心之不服 當何如哉”.

2) 병자호란과 명·청 교체 이후 조선 지배층의 대응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였다. 정옥자, 2010,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우경섭, 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등.

3) 병자호란 관련 문학에 대하여 필자가 주로 참고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소설사연구반, 2013,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운명: 17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이종필, 2017, 『조선 중기의 전쟁과 고소설의 기억』, 소명출판.

4) 각종 邑誌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병자호란의 戰史를 탐구한 논문으로는 柳承宙, 2002,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史叢』 55를 들 수 있다.

된다. 두 기록은 후대에 재편집된 사료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어 그동안 병자호란을 전공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리지 연구의 측면에서 보자면 편찬 전후 동일 지역의 어떤 지리지도 이 정도 분량의 병자호란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이 책을 서술한 저자의 집필 동기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먼저 동일 지역 지리지와의 체제, 항목 비교 등의 형식적 검토와 같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들 지리지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서술되었는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두 기록의 성격과 편찬 의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두 지리지에 수록된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내용상 특징이나 성격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그간 학계에서 널리 활용된 병자호란 관련 사료 등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련 사료를 취사선택하여 서술한 저자의 의도나 성향, 당대의 지적 분위기, 지리지라는 서사 장르의 특성 또는 형식상 제약 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요컨대, 본고는 그동안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강도지』와 『중정남한지』에 기재된 병자호란 관련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당대인들이 지리지라는 형식을 통하여 병자호란이라는 미증유의 대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기억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특징과 함의는 무엇이었는지究明하는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李衡祥의 『江都志』

1) 저자와 집필 동기

『강도지』의 저자 이형상은 全州 李氏 孝寧大君의 11世孫이다. 字는 仲玉, 號는 瓶窩 또는 順翁이라 하였다.⁵⁾ 효종 4년(1653) 5월 23일 인천 跛巖村에서 성균관

5) 이하 서술한 이형상의 생애는 주로 다음 글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오세운, 「瓶窩全書 江

진사인 아버지 柱夏와 과평 윤씨 尹世壽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2男으로 태어났다. 숙종 3년(1677)에 司馬試(생원)에 합격하였고, 숙종 6년(1680) 28세의 나이로 別試 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숙종 7년(1681)에는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임명되어 관직에 첫 발을 내 디뎠다.

出仕 초기 4년 정도는 戸曹 佐郎, 成均館 典籍, 兵曹 佐郎 등 内職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廣州府 經歷(1686),⁶⁾ 星州 牧使(1687), 錦山 郡守(1689), 清州 牧使(1690), 東萊 府使(1690), 慶州 府尹(1692), 楊洲 牧使(1692), 慶州 府尹(1699), 濟州 牧使(1701), 靈光 郡守(1705) 등의 外職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전하였다. 숙종 18년(1692) 이후 官歷에 큰 단절이 생긴 것은 거듭된 관직 부임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모 봉양, 시묘 살이, 선조 사업, 신병 등의 이유로 출사를 기꺼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숙종 20년(1694)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된 甲戌換局 이란 정치적 격랑도 그의 관직 부임에 일정한 제약을 주었던 것 같다.⁷⁾

숙종 26년(1700) 이후에는 경북 永川에 浩然亭을 세우고 이곳에서 은거하며 다양한 문야의 저술 활동에 주력하였다. 영조 4년(1728) 李麟佐의 난이 발발하자 76세의 고령으로 慶尙下道 召募使로 천거·임명되었으나 관찰사 黃璿의 謐告로 창덕궁 仁政殿에서 鞠問까지 받았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다.⁸⁾ 이후 한양과 인천 등지에서 寓居하다가 영조 9년(1733) 81세로 果川 客舍에서 일생을 마쳤다. 내직 4년, 외직 8년 총 12년간의 관직 생활 동안 청에 진상하는 歲幣布의 규격 엄수, 淫祠 철폐, 儒俗 및 學風 진작, 土賊 해산 등의 업적을 쌓았다. 정조 20년(1796)에는 漢城府 右尹 尹弼秉의 추천으로 清白吏에 선정되었다.⁹⁾

都志 解題(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main.jsp> 게시); 朴珉徹, 2011, 「瓶窯 李衡祥의 著述과 家藏 文獻의 書誌的 分析」, 경북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5-13면.

6) 괄호 안의 연도는 부임 시기, 이하 동일.

7) 權寧徹, 1978, 『瓶窯李衡祥研究』, 한국연구원, 11면 참조.

8) 金容傑, 1993, 「瓶窯 李衡祥의 哲學思想」, 『韓國思想家의 새로운 發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6-7면 참조.

9) 『正祖實錄』 권44, 정조 20년 4월 癸巳(18일).

그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 관료보다 지방관으로서 대부분의 관직 생활을 보냈고, 생전에 3,886편의 詩¹⁰⁾를 포함하여 性理學, 禮樂, 譜書, 地理書, 歷史書, 曆書 등 모두 142종 326책의 저술을 남겼고, 현존하는 것은 60여종 200여 권에 달한다.¹¹⁾ 이러한 그의 博學多識한 學風은 性理學에 기반을 두면서도 실용적 經世學을 겸비한 것으로 해석되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외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는 尊周·尊明이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적극 호응한 인물이었다. 그는 親清派 김자점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고 신화화된 林慶業 장군의 傳을 지었고,¹²⁾ 성주 목사로 재직할 때에는 명에 대한 義理를 지키려다가 순절한砲手 李士龍의 묘에 제사를 지내고 그의 충절을 기리는 忠烈祠를 세웠다.¹³⁾ 그는 이사룡의 처에 대한 食物을 청하는 문서에서 “절의를 높이고 장려하는 일은 잠시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사룡은 만리 밖 중국의 변방에서 몸을 버림으로써 300년의 綱常을 扶植하였다”라고 평하였다.¹⁴⁾ 이러한 對明義理의 고수는 외교상의 대안이라기보다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었다.¹⁵⁾

그는 17·8세기 남인 계열의 대표적 학자이자 실학의 선구로 유명하지만, 黨色을 격렬히 표출하며 黨爭의 선봉에 선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출신 성분이나 교유 관계로 볼 때 老·少 분기 이후 少論界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후 그의 성

10) 朴珉徹, 2011, 앞의 논문, 12면.

11) 오세운, 앞의 해제 참조; 이형상의 문중에서 소장 중이던 그의 遺著는 1978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정리하여 『瓶瓦著書目錄』을 출간하였다. 1980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의 문집인 『瓶瓦集』과 그가 남긴 雜著 가운데 일부를 모아 『瓶瓦全書』題名으로 영인·간행하였다. 『江都志』도 이 책에 포함되었다. 1990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병와집』에 『강도지』를 부록한 뒤 『(國譯) 瓶瓦集』이란 제명을 붙여 출간하였다.

12) 權寧徹, 1978, 앞의 책, 193-211면 참조.

13) 이사룡 배향과 관련된 이형상의 행적에 대해서는 池教憲, 1993, 「瓶窯 李衡祥의 倫理思想」『韓國思想家의 새로운 發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9-152면 참조.

14) 李衡祥, 『瓶窯集』 권18, 牘「星州李士龍妻食物請給牒」.

15) 17세기 이후 척화론과 대명의리론의 성격에 대해서는 허태구, 2015,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奎章閣』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0-189면 참조.

리학풍이 退溪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되면서 그도 점차 남인 쪽으로 傾斜되었던 것이다.¹⁶⁾ 그의 黨色은 그가 許穆을 깊이 존경했다는 점, 노론 세력에 밀려 내직에 보임되지 못한 점, 그의 문집인 『병와집』의 「序文」과 「行狀」을 蔡濟恭이 짓고 「跋文」을 남인의 대표적 학자인 李象靖이 쓴 점, 이인좌의 난에 연좌된 점, 영남 남인의 세력권인 영천에 우거하고 있었던 것 등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⁷⁾

(경기도) 광주, 제주, 동래 등의 요충지와 변방의 수령을 역임한 그의 경험은 지리류 관련 저술 작업을 추동한 배경 중 하나로 생각된다.¹⁸⁾ 이형상은 『강도지』(강화도)를 비롯하여, 『南宦博物』·『北脣拾零』·『耽羅巡歷圖』·『耽羅錄』(이상 제주도), 『東夷刪略』(일본), 『四夷總說』,¹⁹⁾ 『三才一攬』(중국) 등의 인문지리지를 저술하였다. 그의 인문지리 관련 저작들은 정보의 분량뿐 아니라 밀도에서도 기존의 동일 지역 지리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²⁰⁾

이 책들이 편찬된 전후 시기는 三藩의 亂, 寧古塔 回歸說의 유행, 李麟佐의 난 등으로 인하여 안보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保障處로서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방어력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북한산성 축조를 포함해 도성수비 체제의 강화가 시도되는 때이기도 하였다.²¹⁾ 『강도지』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東萊志』(1612년 경), 『北關誌』(1617), 『耽羅志』(1653) 등의 읍지 역시 군사 방어적 측면의 내용이 강조된 저작이었다.²²⁾

16) 朴珉徹, 2011, 앞의 논문, 11면.

17) 오세운, 앞의 해제 참조.

18) 구지현, 2015, 「이형상의 일본 지리지 『東耳散略』 연구」, 『인문과학연구』 4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8면 참조.

19) 『사이총설』은 四夷를 고대와 오늘날의 사이로 구분하여, 고대 사이에 대한 나라 명칭을 언급하고 오늘날의 사이로 여진·일본·대소유구·서반 등 4개국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그들의 언어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고사이국(古四夷國) 가운데 ‘몽고’와 더불어 토번·흉노·거란 항은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디지털영천문화대전 『사이총설』 해설, 이상규 집필).

20) 權寧徹, 1978, 앞의 책, 287-317면; 구지현, 2015, 앞의 논문, 13-26면 참조.

21) 노영구, 2014, 「17~18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의 도성 수비체제 이해의 방향」, 『朝鮮時代史學報』 71 참조.

이형상이 『강도지』(필사본, 2권 2책, 124장)²³⁾를 편찬하게 된 좀 더 직접적인 계기는 江華 留守로 재직하였던 노론계 閔鎮周(1646~1700)의 부탁 때문이었다.²⁴⁾ 그는 숙종 19년(1693) 양주 목사에서 파직당한 후 1694년부터 1696년까지 강화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때 민진주의 권유와 지원으로 『강도지』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저술을 숙종 22년(1696) 강화도 관련 국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국왕에게 올리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어 간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서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²⁵⁾ 숙종 24년(1698)에 해당되는 기록이 『강도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완성 이후에도 일부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²⁶⁾

이형상은 안주 목사에 제수한다는 국왕의 명을 辭避하면서 『강도지』를 올리려고 하였던 것인데,²⁷⁾ 해당초 숙종에게 올리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²⁸⁾ 그는 강화도의 地理와 歷史를 집대성하는 한편,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이 다시 도래할 경우를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강도지』를 저술하였던 것이다.²⁹⁾

22) 양보경, 1983, 「16-17世紀 邑誌의 編纂背景과 그 性格」, 『地理學』 27, 대한지리학회, 67면 참조.

23) 이 논문에서는 『강도지』의 텍스트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main.jsp>)에 게시된 원문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 『(國譯) 甕窩集』 권3(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刊) 부록에 수록된 국역문을 활용하였다.

24) 李衡祥, 『江都志』上「序」“舊無記, 罣不妄而錄之者, 閔留相鎮周也. 吾旣受一塵爲氓無所裨於軍國, 詢之耆舊, 備諸苞桑, 亦其分宜也”.

25) 權寧徹, 1978, 앞의 책, 230-232면.

26) 위의 각주.

27) 蔡濟恭, 「甕窩先生李公行狀」(『甕窩集』附錄 所收) “甲戌 朝局又改 忌公者多 公入江都 除 安州牧使 辭遞 撰江都誌二卷 備論守禦策 擬獻于朝 不果”.

28) 李衡祥, 『甕窩集』 권5, 疏「擬進江都誌疏丙午」“…作爲一冊 名之曰江都誌 雖其弊瘼靡不畢載 此不過私記聞見 以資故掌而已 初無奏御之意 故下語多涉傲慢 傳寫亦甚不精 臣雖無狀 粗識敬君之道矣 曷敢以鄙辭荒筆 仰干聖聰 而臣之辭退 適當此際 後而失其時矣 不揆僭猥之誅 敢代微身之獻 倘於燕閒之暇 倾賜乙覽…”(강조는 필자).

29) 李衡祥, 『江都志』上「序」“江都志者 誌江都之書也 凡疆域之有志 吉也 本於遷史 合年表傳記而一之概欲記前 而考後也 況此陪都鑑戒關國 故掌之守 亦係文獻 此志之所以作也”; 李衡祥, 『江都志』下「總論」“論者皆云 兵徵亂形不遠在邇 臨津以北識說 尤怕脫 有緩急 金湯足恃 我獨以爲不然 何者…今之所務 惟當知所先後 靜以遵養然後 守城制敵之具 方可以次

『강도지』를 편찬함에 있어서 기본으로 한 것은 『여지승람』이고, 참고해서 첨가한 것은 「列聖行狀」, 고려의 역사책들, 『故事撮要』, 그리고 선배들의 문집과 소설 들이다. 그 책에傍系로採錄한 것은 草野의 古老와 글 할 줄 아는 중[僧]의 見聞으로 前日의 일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이다.³⁰⁾

위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그가 『강도지』를 편찬하면서 빼대로 삼은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2에 수록된 「江華都護府」의 기록이다. 그러나, 21조³¹⁾에 불과하였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항목은 『강도지』에서는 상·하 도합 66조로 크게 증가하였다.³²⁾ 정조 7년(1783) 강화 유수 金魯鎮이 편찬한 『江華府志』는 상·하 도

第相議…”.

30) 李衡祥, 『江都志』 上「序」.

31) 建治沿革·官員·郡名·姓氏·形勝·山川·土產·關防·烽燧·宮室·樓亭·學校·院宇·橋梁·佛字·祠壇·陵墓·古跡·名宦·人物·題詠.

32) 『강도지』의 상책은 序를 제외하면 幅員·沿革·姓氏·民戶·官員·名宦·郎廳·差除·久勤·坊里·山岳·海島·川浦·古跡·祠壇·烽燧·土產·人物(寓居 포함)·風俗·忠臣·孝子·烈女·將校·軍兵·官屬·屬邑·鎮堡·形勝·把守·城郭·墩隍·津渡·船舶·宮闕·影殿·史閣·鄉校·祠宇·陵墓·佛寺·樓觀·公廨·倉庫·軍餉의 44개 항목, 하권은 軍器·內帑·諸宮·各司·橋梁·堤堰·泉井·風雨·田畠·牧場·屯田·賦役·料祿·試才·謫居·畜物·題詠·攬論·麗朝遷都記·壬辰零談·丁卯錄·丙丁錄의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형상의 유고를 처음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권영철은 『강도지』 상책이 圖序·幅員·沿革·姓氏·民戶·官員·名宦·郎廳·差除·久勤·坊里·山岳·海島·川浦·古跡·祠堂·烽燧·土產·人物(寓居 포함)·風俗·忠臣·孝子·烈女·將校·軍兵·官屬·屬邑·鎮堡·形勝·把守·城郭·墩隍·津渡·船舶·宮闕·影殿·史閣·鄉校·祠宇·陵墓·佛寺·樓觀·公廨·倉庫·軍餉·軍器·內帑·諸宮·各司·橋梁·堤堰·泉井·風雨·田畠·牧場·屯田·賦役·料祿·試才·謫居·畜物·題詠·政要·攬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책은 麗朝遷都記·壬辰零談·甲子補遺·丁卯錄·丙丁錄·林將軍傳·日本國志·女眞國志·蒙古國志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權寧徹, 1978, 앞의 책, 229-287면; 강조는 필자). 표기상의 차이는 논외로 하더라도 항목 자체의 누락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하책의 항목 분류도 필자가 확인한 것과 달랐다. 참고로 영인본 『병와전서』에 수록된 『강도지』는 필자가 확인한 판본과 동일하다. 이형상의 遺稿와 『강도지』 판본 전체를 실물로 확인하지 못한 필자로서는 이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에서 최근 역주한 『강도지』에는 『병와전서』에 수록된 것과 다른 판본의 원문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판본의 목차 정보가 권영철이 제시한 것과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였다는 점이다(祠堂→社壇,

합 31조의 항목에 불과하였다.³³⁾ 정보의 분량뿐만 아니라, 군사·재정 분야의 상세한 통계와 정보의 밀도 역시 일반적 지리지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이 점은 민진주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 『강도지』에 수록된 상세한 통계나 「事目」 등의 고문서는 이형상 개인이 쉽게 입수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강도지』 일부 항목의 끝 부분에는 「事目」이 첨부되었다. 이것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강화부가 중앙과 주고 받은 公文의 내용을 기록해 둔 것으로, 이것을 보면 새로 부임한 수령이라도 각 항목의 변동 내역과 정책의 일관성 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³⁵⁾ 본문 밑에 細註 형식으로 쓴 부분에는 마치 연대기의 史論처럼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논평을 상당한 분량으로 附記해 놓은 것도 『강도지』의 한 특징이다.

『강도지』 하책의 「泉井」은 항목의 존재 자체도 새롭거나 내용에서도 우물을 파는 다섯 가지 방법을 비롯하여 水脈을 찾는 네 가지 방법, 샘물의 맛을 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관련 書冊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직접 村老나 늙은 衙前 등에게 확인하거나 실제 답사를 통해 얻은 지

麗朝遷都記→遷都記). 그러나, 목차 정보와 달리 이 판본의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상책은 序를 제외하면 幅員·沿革·姓氏·民戶·官員·名宦·郎廳·差除·久勤·坊里·山岳·海島·川浦·古跡·祠壇·烽燧·土產·人物(寓居 포함)·風俗·忠臣·孝子·烈女·將校·軍兵·官屬·屬邑·鎮堡·形勝·把守·城郭·墩隍·津渡·船舶·宮闕·影殿·史閣·鄉校·祠宇·陵墓·佛寺·樓觀·公廨·倉庫·軍餉의 44개 항목, 하책은 軍器·內帑·諸宮·各司·橋梁·堤堰·泉井·風雨·田畠·牧場·屯田·賦役·料祿·試才·謫居·畜物·題詠·摠論의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3) 『江華府志』(奎 10699)의 상책은 序와 目例를 제외하면 疆界·建置沿革·形勝·姓氏·風俗·山川·土產·城郭(池井)·關梁·鎮堡(牧場)·整臺·烽燧·坊里·堤堰·島嶼·宮殿·府廨·學校·祠壇·亭臺·陵墓·佛宇의 22개 항목으로, 하책은 職制(屬官)·軍制(鎮撫官·統禦營·兩營將校勤仕)·貢士·名宦(遺愛碑)·流萬·人物(節孝旌贈, 丁丑兵士女殉義)·烈女·古蹟·事實의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34) 오세운, 앞의 해제 참조.

35) 李衡祥, 『江都志』下 「摠論」 “第念四朝事目 累經變改 其與設立本意 不相背馳者幾希矣 其撓攘渙散莫適所從不可不及時整頓者 雖有小害事關大經不得不及時變通者 及因循謬規漸成弊瘼不得不及時革除之類 亦不可諉之於未遑而不爲之講究也”.

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준의 체재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지역의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수록하려는 그의 지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泉井」의 수록 동기가 다름 아닌 군사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³⁶⁾ 하책의 「摠論」 항목의 내용 역시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강화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有備無患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 큰 줄기이다.

論議하는 자들이 모두 “兵亂의 조짐은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에 있다. 지금 임진강 이북에 떠도는 謠說이 더욱 끔찍스럽지만 만에 하나 무슨 變故가 생긴다 해도 金湯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겠다. …

회상해 보건대, 이전 병자년 봄에 前 判書 金時讓이 존경받는 耆老舊臣으로 時務를 아뢰어 “앞으로 반드시 청나라의 생트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林慶業도 마땅히 軍政을 정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文臣들은 너와 나 할 것 없이 시대에 뒤진 말이라 하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와서 따져 보면 그때 청나라와의 和親보다 斥和를 주장한 이가 얼마나 깨끗하고 훌륭한가? …그러므로 지금의 急務는 마땅히 그 선후를 잘 파악하여 차분히 힘부터 기른 뒤에야 城을 지키고 적을 제어하는 기구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³⁷⁾

이 항목 다음 「壬辰零談」, 「丁卯錄」, 「丙丁錄」의 순서로 『강도지』가 마무리되는 것은 이 책의 저술 동기가 인문지리적 정보의 광범위한 집적뿐만 아니라 전쟁의 교훈을 후세에 鑑戒하려는 데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2) 『강도지』 내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典據와 특징

『강도지』에서 병자호란 관련 기록은 「人物」, 「忠臣」, 「烈女」, 「祠宇」, 「丁卯錄」 등의 항목에 수록되었지만, 집중된 곳은 「丙丁錄」이다. 이 항목의 서두에는 細註의 형태로 참고한 자료를 밝히고 있다.

36) 李衡祥, 『江都志』 下 「泉井」 “國之大事在戎, 人之命脈在水, 況此花島昇天兩堡及四十九墩, 俱無泉井, 或汲於五里之外, 其他若濟物月串廣城龍津之屬, 亦甚不敷, 平時若此, 臨渴何汲”.

37) 李衡祥, 『江都志』 下 「摠論」.

세상에는 『江都錄』과 『南漢日記』가 전한다. 「江都錄後評」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나 記事が 매우 상세하다. 또한 嶺南人 南磁가 기록한 것도 있으므로 아울러 채택하였다.³⁸⁾

異名이 많은 古書의 특성상 이 정도 수준의 정보만으로 「丙丁錄」의 전거 기록을 밝히기는 힘든데, 다행히 이형상은 본문의 중간 중간에 그가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그 출처를 細註로 밝혀 놓아 고증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열거해 보면, 南磁記,³⁹⁾ 「趙翼日記」,⁴⁰⁾ 羅萬甲이 기록한 것,⁴¹⁾ 『林慶業傳』,⁴²⁾ 여러 문집에서 채집한 것, 父老들이 전해오는 얘기, 金尙容의 行狀,⁴³⁾ 『江華狀啓勝錄』⁴⁴⁾ 등이 있다.

「병정록」의 서두와 본문을 보면 각주에서 밝혀 놓았듯이 대부분의 전거 자료가 확정되나, 여전히 不明한 것은 『남한일기』와 『강도록』이다. 『남한일기』는 同名의 기록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⁴⁵⁾ 다른 것에는 수록되지 않은 특정 기사를 근거로 확인해 보니 이형상이 참고한 전거로 의심되는 자료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다. 예를 들어, 「丙丁錄」에 있는 ‘병자년 12월 29일 許惆을 清陣에 과견’한 내용의 묘사나, 정축년 1월 22일 ‘三韓의 精氣가 오로지 이 사람(=鄭蘊)에게 있다’는 내용 등은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에 소장 중인 작자 미상의 「남한일기」에서만 확인된다.⁴⁶⁾ 공교롭게도 이 『남한일기』가 수록된 저술의 表題가 『江

38) 李衡祥, 『江都志』下 「丙丁錄」.

39) 南磯(1592~1671)의 『南漢日記』. 異稱은 『丙丁日記』, 『亂離日記』, 『亂離雜記』.

40) 趙翼의 「丙丁記事」. 『浦渚集』 권25, 雜著에 수록되어 있다.

41) 나만갑의 『丙子錄』. 異稱은 『丙子南漢日記』, 『白登錄』.

42) 여러 판본이 있는데 宋時烈이 저술한 것이 가장 유명하다.

43) 동생 金尙憲이 저었다.

44) 未詳.

45) 朴潢(1597~1648), 鄭之虎(1605~1678), 石之珩(1610~?) 등이 썼다고 알려진 『南漢日記』도 각각 존재한다. 최근 석지형의 『남한일기』가 당시 승정원 假注書들이 작성한 일기로서 원본 『승정원일기』의 초고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학계에 제출되었다(김남일, 2015, 「병자호란 시기 『승정원일기』의 전거 자료 『남한일기』 연구-개수본 『승정원일기』와 『남한일기』·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비교-」, 『韓國史學史學報』 32).

46)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사이트에서 열람(<http://kostma.korea.ac.kr/>): 작자 미상, 『江都錄』, 「南漢日記」“(丙子年 十二月)二十九日 遣將許惆請和好…(丁丑年 一月)二十

都錄』(청구기호 3487.3148, 필사본, 1책 44장)이다. 이 『강도록』이란 표제의 책 속에는 「남한일기」, 「강도록」, 「吳達濟傳」, 「元生夢遊錄」, 「燕山事蹟」, 「江都後評」, 「前黃潤縣監宋來熙上疏」, 「江華府南門仙源先生殉義」, 「燭影賦」 등이 차례로 실려 있었다. 이를 실마리로 하여, 이 책에 수록된 「강도록」·「강도후평」의 내용과 「병정록」의 해당 인용 부분을 대조·검토해보니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⁴⁷⁾ 이를 감안하면, 이형상은 미 버클리대 소장본 계열의 『강도록』 판본을 참고하여 「병정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대 소장본 『강도록』은 표지에 ‘癸卯 十一月 日’이라는 정보가 墨書로 付記되어 있으며, 「강도후평」의 題銘 밑에 ‘尤庵⁴⁸⁾’이라는 표기가 있다. 「정묘록」의 전거 자료는 서두에 특별히 밝혀 놓지 않았지만, 본문에 細註 형태로 전거를 밝혀 놓았다. 『고사촬요』와 선배의 문집이라고 기록하기도 했고, 『白州集』(李明漢)⁴⁹⁾ · 『浦渚集』(趙翼) · 『月沙集』(李廷龜), 『白沙集』(李恒福)으로 정확히 명기한 부분도 있다.

「병정록」을 포함한 『강도지』 내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특징은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이 전쟁의 始末을 강화도를 중심에 놓고 서술한다는 점이다. 「정묘록」이 「병정록」 앞에 배치된 것도, 정묘호란 당시 국왕의 播遷과 정묘맹약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묘호란이 “병자년의 張本(=일의 발단)이 됨으로 아울

二日…鄭蘊又陳箚曰臣旣斥和請出賊陣人謂三韓正氣凝結於此人矣”; 李衡祥, 『江都志』下「丙丁錄」“(丙子年十二月)二十九日 將送許禡請和…(丁丑年一月)二十二日…鄭蘊又上疏請往人曰三韓正氣專着此人【以上南漢日記】”.

47) 한 두 부분만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작자 미상, 『江都錄』, 「江都後評」 “余於金相國尙容 又有感者何也 耆舊碩德莫如相國 一世屬望莫如相國…”; 李衡祥, 『江都志』下「丙丁錄」“(丁丑年一月)二十二日…【後評曰 耆舊碩德莫如相國 一世屬望亦寔如相國】…”; 작자 미상, 『江都錄』, 「江都錄」“(丙子年十二月)十四日晡時 上率春宮出昌德宮 前隊不及青橋 賊鋒已及 上度不得及達于江都 遂上崇禮門 典諸大臣方論應之策…”; 李衡祥, 『江都志』下「丙丁錄」“(丙子年十二月)十四日晡時 上率春宮出昌德宮前路 前隊未及青坡橋 敵鋒先及 上度不能達 御崇禮門 典諸大臣議之…【以上出江都錄錄及南漢記】”: 좌측에 인용된 부분에 보이는 묘사나 인조의 出宮 시간을晡時로 기록한 것은 다른 병자호란 관련 기록에서 찾기 힘든 것이다.

48) 宋時烈의 號.

49) 괄호 안의 저자는 필자가 明記한 것임. 원 자료에는 없음.

려 기록해 둔 것”이었다.⁵⁰⁾

국왕의 동선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官撰 연대기 사료에서는 병자호란이란 전쟁이 남한산성을 중심 배경으로 서술되기 마련이다. 인조를扈從하여 남한산성에서 管餉使로 재직한 나만갑의 『병자록』에도 강화도 抗戰의 기록이 있지만 傳聞에 근거한 것이라 疏略함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병정록」은 官撰 사료에 기록된 남한산성 농성 당시 君臣 간의 (主和·斥和) 논의, 조·청 간의 교섭 전말과 오고간 國書 全文 등이 대폭 생략된 반면에, 강화도 피난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여러 신료와 사대부들의 행적, 강화도 함락 당시의 戰況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趙翼처럼 君主를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했다는 비난을 받은 인물의 행적은 그대로 기록하되, 그의 日記⁵¹⁾를 세주로 인용하여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⁵²⁾ 여러 기록을 참고하여 해당 부분을 서술하였을 때는 내용의 加減·詳略이 있어 자신이 조정하였거나, 상반된 기록은 하나를 주로 취하여 서술하되,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두었다.⁵³⁾

「병정록」을 포함한 『강도지』 내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또 다른 특징은 貞節과 忠節의 강조이다. 「人物」, 「忠臣」, 「烈女」, 「忠臣」, 「祠宇」, 「祭文」, 「丁卯錄」, 「丙丁錄」 등의 여러 항목에서 반복하여 병자호란 당시 절개와 의리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이 顯彰되었다. 특히 「烈女」 항목에서는 고려~조선에 걸쳐 殉節한 140여인에 달하는 열녀를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⁵⁴⁾ 이들 중 92인이 병자호란 순절한婦女들이었는데, 지역 출신과 他官에서 피난 온 여인들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아울러,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절의 방식 또한 구분하여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지역

50) 李衡祥, 『江都志』 下 「丙丁錄」.

51) 趙翼, 『浦渚集』 권25, 雜著 「丙丁記事」를 가리킴.

52) 李衡祥, 『江都志』 下 「丙丁錄」 “(丙子年 十二月)十四日…趙翼頓棄奉社稷之命 私自避亂 於大阜島中 【以上出江都錄 趙翼日記曰 十二月十四日宿天登 到甲串尋覓老親所…】”.

53) 李衡祥, 『江都志』 下 「丙丁錄」 “(丁丑年) 正月 二十二日…慶徵敵求棄馬 先走乘小艇 與張紳同乘戰船 仍走於忠清道之海島 【以上出於江都錄南漢日記趙翼日記南磁所記 而互有詳略 故依其次第 各各採入…】”.

54) 오세운, 앞의 해제 참조.

출신의 부녀들은 士族, 常民, 賤人을 가리지 않고 기재해 놓았는데, 이것은 17세기 중엽에 편찬된 읍지의 시대적 특징이기도 하였다.⁵⁵⁾

「祠宇」 항목에서 정축년에 節死한 자들을 기리기 위해 1641~1642년에 配享·追享된 金尙容을 비롯한 11인⁵⁶⁾을 기록해 놓았는데, 세주에는 그들의 節義 행적 또는 祭享에 따른 논란도 함께 기록하였다. 「병정록」의 후반부에는 金尙容을 필두로 강화도 함락 당시 순절한 士大夫와 그들 婦女의 인명을 다시 한번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이들에 대한 현창은 『강도지』 곳곳에서 묘사된 金塗⁵⁷⁾ · 金慶徵⁵⁸⁾ 부자, 李敏求,⁵⁹⁾ 張紳⁶⁰⁾ 등의 비겁하고 무능하며 안이한 행적, 그리고 강화도 함몰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상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극적 효과를 더한다.

朝野가 모두 江都는 천연적인 요새지이므로 반드시 적이 건너올 수 없다고 여겨, 날마다 마음 놓고 편안히 있었다. 守臣이 몇대로 오만하게 기세를 부렸으나 大臣들이 病弱하여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치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게 되어 사사건건이 모순투성이였다. 따라서 모든 機務를 김경징이 모두 마음대로 처리하였으며, 날마다 여러 친척 · 친속들과 더불어 술주정이나 하고 놓지꺼리나 일삼았다. 임금께서 친히 전쟁터에 나서서 적과 싸우며 입맛을 잊고 계시는데, 김경징은 두터운 가죽옷에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생선과 珍味를 먹었으며, 추위를 막는 술이 있는가 하면 계속되는 飽食에 삶증이 날 정도였다.⁶¹⁾

마니산 일대에는 巖穴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숨은 사람이 많았는데, 적군의 채찍을 한번 겪고 나서는 온 산에 꽉 차도록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였으므로, 물에 가

55) 양보경, 1997, 「조선시대 읍지의 체재와 특징」, 『인문과학논집』 4, 강남대학교, 18-20면 참조.

56) 金尙容, 李尙吉, 李時稷, 尹聚, 沈觀, 宋時榮, 具元一(이상 7인 배향자), 黃善身, 權順長, 金益兼, 尹煌, 姜興業(이상 5인 추향자).

57) 병자호란 당시 영의정으로 都體察使職을 수행하며 전쟁을 총 지휘.

58) 병자호란 당시 江都檢察使.

59) 병자호란 당시 江都檢察副使. 李暉光의 아들. 병조호란 당시 병조 판서였던 李聖求의 동생이다.

60) 병자호란 당시 江都留守兼舟師大將. 봉림대군의 장인이었던 張維의 동생.

61) 李衡祥, 『江都志』 下 「丙丁錄」.

까이 간 사람은 빠져 죽기도 하고 절벽에 가까이 간 사람은 떨어져 죽기도 하였다. 首帖(=두건: 필자)는 물 위에 낙엽처럼 떠서 흘러갔고 도량에 버려진 아이들은 신을 벗어 던져 쌓아 놓은 것보다 심하였다. 시체는 서로 포개져 쌓였으며 살아있는 이는 영금엉금 기었다. 죽은 어미의 젖을 빨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기도 하면서 빙빙 돌다가 도로 엎어지기도 하였으므로 눈을 뜨고는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참상이었다.⁶²⁾

「병정록」은 병자호란을 주제로 한 당대의 많은 강화도 관련 公·私 기록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함락의 주요 원인을 江都檢察使 金慶徵의 판단 착오, 安逸, 비겁 등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강화도 방어 작전의 중심이 水戰에 있었다는 점, 겸찰사라는 관직이 방어 작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점,⁶³⁾ 김경징의 실책과 무관하게 紅夷砲를 비롯한 청군의 전투력이 조선군을 압도했다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형상의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⁶⁴⁾ 병자호란 책임의 폐전을 오롯이 김류·김경징 부자에게 돌리는 화법은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인조의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도지』는 적의 손길 앞에서 장렬히 죽음을 택한 자들의 행적을 높이 친양했지만, 동일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병정록」은 정축년 1월 22일 강화도 함락 당시 갑곶을 방어하던 김경징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城中이 허술하니, 내가 府中으로 도로 들어가서 성을 지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도피하고자 했다고 묘사했지만, 그를 제지한 鳳林大君 역시 “내가 말을 달려 城으로 들어가 軍丁과

62) 위의 각주.

63) 『仁祖實錄』 권34, 仁祖 15년 2월 辛卯(21일) “大司憲韓汝漫大司諫金壽賢執義蔡裕後上箚曰 臣等伏聞金慶徵等滅死照律之教 竊不知殿下 有何可恕之道 而貸其死乎 或不知此人罪狀而然耶 雖有可殺之罪 而不能殺耶 金慶徵 雖曰檢察之任 不關於禦敵 然廟社主嬪宮元孫俱陷於兵塵 而曾無一毫顧念之意 乘船逃走之不暇 則元孫之幸免 天實佑之 然則慶徵之罪 比之諸將之失律 少無差等 李敏求之逃走 亦與慶徵 元無異同 而至於張紳 則留守江都 身攬舟師 以天塹之地 不能守禦”(강조는 필자).

64) 병자호란 이후 김류·김경징 부자의 폐전 책임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허태구, 2011, 「丙子胡亂 江華島 함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金慶徵 폐전책임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113 참조.

軍器를 몸소 이끌고 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곧 결전이 펼쳐질 戰場을 떠난 것은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에 대한 비난은 실리지 않았거나 실릴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世孫을 피난시킨 昭顯世子嬪 姜氏 역시 순절한 부녀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비평은 실리지 않았다. 빈궁의 아버지로 清望이 드높았던 姜碩期의 미심쩍은 행적은 아예 생략되었다. 반면, 비록 傳聞에 의거했지만 나만갑의 『丙子錄』은 “강석기가 처음에 자결하려고 했고, 빈궁도 따라 죽으려고 했으나, 두 大君(=봉립, 인평)이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적어 놓았다.⁶⁵⁾ 이들 행적의 미묘하고 민감한 지점을 나만갑이 의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물」조에 나란히 기록된 尹槩·尹集의 척화 행적을 편웨할 소지가 있는 인물평도 전거 자료인 南磯의 기록에서 보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전하기를, “南陽守(=윤계)가 그의 할머니와 함께 모두 적의 칼날을 면치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동생 윤집은 전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라고 평계 대며 화려한 옷을 입어 휘날리니,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고 욕을 하였다.⁶⁶⁾

해당 항목』의 끝에 細註의 형식으로 왜란·호란의 교훈을 강조하며 각종 방어책을 상세히 제안한 것도 『강도지』의 내용상 특징이다. 강화도는 유사시 保障處로서 인조대부터 크게 중시되어 각종 물력과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하였다.⁶⁷⁾ 이에 따라 경기 수영이 강화도로 이전되었고, 교동에는 3도통어영을 설치되었다. 효종대에는 해안을 방어하는 여러 鎮堡가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숙종대에는 12개의 鎮堡와 49개의 墩臺가 완비되었다. 아울러, 鹽河 수로를 따라 外城을 쌓았다.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주둔지였던 갑곶 맞은 편 金浦 면 高地에는 文殊山城

65) 羅萬甲, 『丙子錄』「記江都史」.

66) 南磯, 『南漢日記』 정축년 1월 11일.

67) 인조대 이후 강화도 방어의 강화에 대해서는 李敏雄, 1995,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強化」,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이 축조되었다.

이형상은 「把守」에서는 陽川 以西 지역에 독을 뿐만 아니라 적군의 접근을 방어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城郭」에서는 天塹으로서 강화도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는 한편, 강화도 대안에 축조한 문수산성의 고립적 위치를 지적하며 유사시 방어에 실패하여 적군의 근거지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墩隍」과 「津渡」에서는 砲樓의 설치를 역설하였다. 「軍器」에서는 보유한 병기의 수량뿐만 아니라, 각종 銃砲나 弓矢類 등의 제작법, 장단점, 사용법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유사시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의 군사적 제안 상당수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거나 實戰 경험이 없는 文官 출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정축년에 있었던 일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謀事が 좋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甲津에서의 졸렬한 계획을 세운 것이나 喬桐에서의 터무니 없는 계획을 세운 것이나 술에 취한 장수가 겁을 먹는 것들도 모두 天命이었다. 무슨 그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적의 鐵騎가 몰려올 때 그 숫자가 4배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들이 모두 깔주리고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忠君愛國하는 신하가 있어 적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한번 죽을 각오로 싸웠다면 이 또한 臣下의 職分인 것이다. 오히려 능히 다방면으로 계략을 써서 적의 銳鋒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어찌 차마 적 때문에 임금을 버렸겠는가? 이는 元帥와 閫師가 모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林慶業이 平安 兵使에게 檄文을 보내어 날랜 騎兵으로 곧장 적의 소굴을 칠 것을 청하였다. 명나라 舟師大將 黃宗藝가 그 말을 듣고 장하게 여겨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이 계획은 바로 孫臯이 위나라로 달려가던 계책이었는데, 柳琳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도 天命이었다.⁶⁸⁾

병자호란 당시 최선봉에 선 청군의 부대는 상식적으로 볼 때 八旗兵 중에서도 전투력이 가장 뛰어난 자들로 선발된 정예 병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⁶⁹⁾ 아무리

68) 李衡祥, 『江都志』上 「把守」.

69) 청 태종은 인조 14년(1636) 12월 3일 戶部承政 馬福塔(『인조실록』에는 馬夫大로 표기) 등이 인솔한 300명의 軍士를 商人으로 위장하여 심양을 출발하게 한 다음, 같은 날 和碩豫親王 多鐸 등이 인솔한 1,000명을, 12월 7일에는 貝勒 岳託 등이 인솔한 3,000명을 잇

굶주리고 지쳤다 해도 이들을 쉽게 대적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⁷⁰⁾ 임경업의 제안 역시 존재 여부 자체가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사 이 제안이 사실이었더라도 과연 조선군의 기병이 청군이 근거지를 습격할 정도의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의문이다. 임경업이 당시 白馬山城에 틀어박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병자호란 이후 명과의 국교가 단절된 뒤에 조선은 平安監司의 명의로 명나라에 呈文을 보내어 항복의 부득이함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문을 보면 騎兵의 부족과 개별 戰力의 열세로 인하여 守城軍의 후방 교란이 용이하지 못했던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⁷¹⁾

보유한 말의 능력과 훈련 정도, 말과 騎手와의 호흡, 馬草의 보급, 馬兵과 砲手·射手의 합동 전술, 土氣와 전투 경험 어느 면에서도 청군의 鐵騎에 우위를 보이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형상의 제안대로 무모한 遠征과 습격이 쉽게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으며,⁷²⁾ 설령 기습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병자호란의 전세를 뒤집을 정도로 결정적인 것이 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3. 洪敬謨의 『重訂南漢志』

1) 저자와 집필 동기

『중정남한지』의 저자 홍경모는 조선후기 대표적 閥閣 가문인 豊山 洪氏 집안에

달아 출발시켜 마푸타의 뒤를 따르게 하였다(허태구, 2012, 「仁祖代 對後金(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102-103면 참조).

- 70) 나만갑의 『병자록』은 병자년 12월 14일 아침 청군의 선봉을 迎擊한 訓練都監 李興業의 기병 80여기가 昌陵(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건너편에서 물살당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
- 71) 李植, 『澤堂集』 권7 「平安監司呈文」 “爲仰陳小邦被兵情形 冶糺台諒事…乃於上年十二月初九日 猇騎數萬 水渡鴨江 直向京路 勢如風飄 本道諸鎮 皆步卒短技 不敢出城遮截 彼輕兵迅驅 如入無人之境”.
- 72) 청 태종은 조선 침공에 앞서 잔류 병력으로 하여금 濬陽 방어와 명의 기습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柳在城, 1986,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34면 참조).

서 출생하였다.⁷³⁾ 字는 敬修, 號는 冠巖 또는 磐石逸民이라 하였다. 영조 50년 (1774) 11월 17일 漢陽 南部 薰陶坊 泥峴에서 아버지 洪樂源과 어머니 全州李氏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영·정조대에 文名을 떨친 耳溪 洪良浩였고, 외할아버지는 사간원 正言 李存遠이었다. 세 살 때 아버지가 요절하여 할아버지 홍양호의 訓導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순조 9년(1809) 36세의 나이로 別試文科에 합격하여 出仕한 이래 주로 중앙에서 순탄한 관직 생활을 보냈다. 예문관, 흥문관, 성균관, 사헌부, 사간원 등의 清要職을 두루 거쳤으며, 형조·공조·병조·예조·이조의 判書職도 11차례나 歷任하였다. 外職은 黃海道 松禾縣監(1812), 安邊府使(1819), 강원도 관찰사(1825), 함경도 관찰사(1836), 廣州府尹兼守禦使(1844) 등을 역임하였다.⁷⁴⁾ 철종 2년(1851) 1월 24일 鎮川 虎巖里 鄉邸에서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선조의 장녀 貞明公主와 혼인하여 永安尉가 된 洪柱元이 6代祖이다. 홍주원의 자손으로는 영조대의 외척인 洪鳳漢·洪麟漢 형제, 정조대의 세도가 洪國榮, 19세기에 文名을 떨친 洪奭周·洪吉周·洪顯周 형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노론으로 크게 출세한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집안 배경을 가진 홍경모는 洪奭周, 權敦仁, 申緯 등 당대의 노론 名流들과도 폭넓게 교류하였다. 특히 연암 박지원의 학통을 계승한 홍석주와 親交가 깊어, 홍석주는 出仕한 홍경모를 자주 요직에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경모의 집안은 고조부 때부터 소론 계열로 전환한 상태였다. 홍경모 자신도 소론 계열의 학풍을 계승했다고 한다.⁷⁵⁾

홍경모는 순조 30년(1830) 謝恩副使, 순조 34년(1834) 陳賀正使로서 두 차례의 燕行을 통하여 청 제국의 광대한 규모와 번성한 문물에 큰 충격을 받았다.⁷⁶⁾ 명·

73) 이하 서술한 홍경모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주로 의거하여 서술하였다.
장유승, 2010, 「홍경모의 생애와 저술-『관암전서(冠巖全書)』를 중심으로-」, 『문현과 해석』 52; 강석화, 2011, 「홍경모(洪敬謨)의 학문과 사상」,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74) 서인원, 2010, 「冠巖 洪敬謨의 歷史·地理 認識」, 『韓國人物史研究』 14, 252면 참조.

75) 위의 각주.

76) 연행 이후 홍경모의 사상적 변화에 대해서는 강석화, 2011, 앞의 논문, 30-38면; 이창숙,

청의 교체를 天命의 轉移로까지 인정한 그였지만, 對明義理나 尊周論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식은 중원에서는 사라진 중화를 조선이 계승하였다 는 자부심으로 연결되었다. 연행 이후에는 자국 역사의 유구성과 독자성에 관심으로 『東史辨疑』 등의 실증적 역사서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른바 京華士族의 일원으로서 19세기 전반의 사상·문화계를 대표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조부 홍양호의 考證學과 博學風을 계승한 그는 문학, 역사학, 지리학, 천문학, 음악학, 미술학 분야의 방대하고 다채로운 저술을 남겼다.⁷⁷⁾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15종 190책에 달하는 홍경모의 저작이 소장되어 있다.⁷⁸⁾

『重訂南漢志』(奎4068, 3책 486장, 필사본)는 현종 12년(1846) 홍경모가 편찬한 廣州府의 私撰 邑誌이다.⁷⁹⁾ 序文에는 이 책의 저술 동기, 자료 활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敬謨가 當寧 甲辰⁸⁰⁾에 임금께 명을 받고 鎮에 나아가 일을 맡아 史蹟을 고찰하니 충분히 증명할 만한 것이 없었다. 府에 옛 地誌가 있기는 하나 끊어지고 문드러진 조각들이라 믿고 의지할 수 없었다. 마침 徐命膺이 편찬한 『南城志』를 갖게 되었으니 正廟己亥⁸¹⁾에 당시 守禦使로 있으면서 王名을 받고 편찬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책이다. 이에 옛 기록과 서로 參酌하여 거듭 訂正하고, 國史와 野乘에서 本州와 관계되는 것들을 두루 채집하여 일을 비교하여 말을 연결하고 예 것을 보충하고 새 것을 더해서 꼬

2011, 「관암 홍경모의 중국 체험과 인식」,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179-200면 참조.

77) 홍경모의 다채로운 학문 경행을 탐구한 책으로는 이종묵 편, 2011,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참조.

78) 장유승, 2010, 앞의 논문, 181면.

79) 『중정남한지』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판본이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것보다 더 이를 판본이다. 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奎4068본을 분석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80) 憲宗 10년(1784).

81) 正祖 3년(1779).

개어 나누되 부문별로 나누고, 나누어 차례를 짓되 종류를 따라 모아서 책을 완성하니 모두 13권이다. 이는 모두 남한의 한 가닥 믿을 만한 역사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할 길이 없어 여전히 역사에 빠진 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한스럽다.⁸²⁾

위의 기록에 위하면, 그는 舊 邑誌의 부실한 정보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읍지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며, 이 때 母本으로 활용한 중요 자료가 서명웅이 왕명으로 편찬하다가 未完에 그친 『南城志』였다.⁸³⁾ 그는 이전 읍지와 『남성지』에 실리지 않았던 18조를 추가하여 전체 63개의 항목을 갖는 새로운 읍지를 제작하였다.⁸⁴⁾ 『新增東國輿地勝覽』 권6에 수록된 「廣州牧」의 항목 20조⁸⁵⁾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날 숫자이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중인 광주부 읍지 5종(19세기 이후 제작)의 항목이 26~42개에 불과한 것과도 대조적이다.⁸⁶⁾ 『중정남한지』는 수록된 정보

82) 洪敬謨, 『重訂南漢志』上 「序」

83) 속종 · 영조 · 정조 · 철종 · 고종은 남한산성에 종종 행차하여 병자호란의 교훈을 되새기며 민심을 수습하고 善政을 다짐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다. 정조 3년(1779) 수어사로 재직하던 서명웅은 남한산성을 방문한 정조와 군사훈련을 참관하면서 埋火砲의 위력에 대하여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다(김문식, 2012 「조선후기 국왕의 南漢山城 행차」, 『朝鮮時代 史學報』 60, 118-119면). 앞에서 본 『중정남한지』의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서명웅이 『남성지』 편찬에 착수한 것은 이 때 정조의 行幸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84) 3책의 『중정남한지』는 13권 6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책 맨 앞에 序 · 納例 · 總目이 있고, 권1은 南漢 · 星度 · 分野 · 山川 · 形勝 · 建置 · 城池 · 薦域 · 坊里 · 郡名 · 姓氏 · 職官, 권2는 宮室 · 官廨 · 樓亭 · 陵寢 · 壇廟 · 學校, 권3은 關防 · 津渡 · 烽燧 · 驛傳 · 站院 · 市場 · 牧場 · 佛宇 · 墳墓로 구성되었다. 2책은 권4 營制 · 軍制 · 公幹 · 操鍊 · 試藝 · 軍物 · 軍器 · 軍需, 권5는 供獻 · 營儲 · 經費 · 支放 · 倉庫 · 屯田 · 堤堰 · 田結 · 結錢 · 賦役 · 戶口 · 風俗 · 物產으로 구성되었다. 3책은 권6 名宦, 권7 人物 · 寓居 · 節義 · 孝子 · 烈女, 권8은 題詠, 권9~10은 城史, 권11은 史餘 · 逸事 · 勝蹟, 권12~13은 故實로 구성되었다.

85) 建治沿革 · 鎭管 · 官員 · 郡名 · 姓氏 · 風俗 · 形勝 · 山川 · 土產 · 烽燧 · 樓亭 · 學校 · 驛院 · 佛宇 · 祠廟 · 陵墓 · 古跡 · 名宦 · 人物 · 題詠.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구축한 국가전적자료센터 내 지리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였다(<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예를 들어, 고종 8년 (1871)에 편찬된 1책 38장의 『廣州府邑誌』(奎 12180)은 坊里 · 道路 · 建置 · 沿革 · 郡名 · 形勝 · 城池 · 官職 · 山川 · 姓氏 · 風俗 · 陵寢 · 壇廟 · 公廨 · 堤堰 · 倉庫 · 物產 · 橋梁 · 驛院 · 關廄 · 烽燧 · 樓亭 · 寺刹 · 古蹟 · 鎮堡 · 人物 · 田賦 · 進貢 · 耘繩 · 田稅 · 大同 · 軍兵 ·

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軍器」·「軍物」·「經費」·「倉庫」·「屯田」 등 군사 및 재정 관련 정보와 통계 역시 상세하다.⁸⁷⁾ 守禦廳이 설치된 保障處로서 광주부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광주부 읍지에는 보이지 않는 「城史」라는 조목을 두고, 병자호란에 상당 분량을 할애한 것도 주목된다.

城史 중에 두 志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徐命膺의 志 중에 本州의 沿革과 本朝의 事實로써 대충대충 기록하여 역시 빠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三國史』와 『高麗史』와 本朝의 公私의 글을 詳考하여 엮어 城史로 하되, 丙子·丁丑 때 城이 포위당한 일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함은 本城이 있은 후로 이와 같은 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⁸⁸⁾

전국지리지 형태의 일목요연하고 통일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체계는 아무래도 병자호란의 현장이었던 남한산성의 역사를 특색 있고 충실하게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역사·지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홍경모는 「城史」의 항목을 두어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중정남한지』 내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典據와 特징

『중정남한지』에서 병자호란 관련 기록은 「關防」, 「津渡」,⁸⁹⁾ 「節義」, 「題詠」, 「城史」 등의 항목에 나오지만, 집중된 곳은 「城史」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홍경모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참고한 전거 자료를 國史와 野乘에 의거하였다고만 밝혔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기존 자료의 정보를 재조직해 체계화하는 한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여러 문헌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

俸廩·冊板·結摠·還摠·別備穀·外道穀·歲入·受料·屯田·科試[先生案]의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8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 내 『重訂南漢志』(奎 4068)의 상세정보 참조(김백철 작성).

88) 洪敬謨, 『重訂南漢志』, 「敍例」.

89) 이 항목에는 三田渡碑의 全文이 실려 있다.

하는 저작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⁹⁰⁾ 이런 저술 경향은 『중정남한지』의 편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항목의 말미에 본문의 내용과 연관된 君臣 간의 朝議 내용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그가 國史를 참고한 것은 확실하나 어떤 책을 보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城史」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 역시 어떤 전거자료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 서술의 내용과 큰 흐름에서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故事本末의 「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조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⁹¹⁾ 그렇다면 그가 「병자노란 정축남한출성」조뿐만 아니라, 『연려실기술』에 出處를 밝힌 여러 서적⁹²⁾도 함께 참고하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 가설을 입증하듯이, 「城史」 내 병자년 12월 16일 “申時에 두 개의 해가 나란히 서면에서 출현하였다[申時兩日出於西方]”라는 기록으로 검증해 보면,⁹³⁾ 『연려실기술』에는 나오지 않는 이 내용이 그 전거자료인 『(亂中)雜錄』과 『春坡堂日月錄』에는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⁴⁾ 이로써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홍경모가 「城史」를 작성하면서 참고한 私撰 기록의 범위를 『연려실기술』과 그 전거자료 정도라고 범범하게 설정할 수 있다.

「城史」를 비롯한 『중정남한록』 내 병자호란 관련 기록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병자호란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분량의 제약 때문에, 『인조실록』이나 나만갑의 『병자록』 등에 실린 (주화·척화론을 둘러싼) 조정의 상세한 논의, 조·청 간

90) 손성필, 2014, 「『복새기략』의 편찬 경위와 편찬자 문제」, 『民族文化』 43, 한국고전번역원, 315-316면 참조.

91)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洪敬謨, 『重訂南漢志』, 「城史」 “賊兵到長湍 府使黃稷 猝然相遇 與軍兵盡爲被擄 幷削髮編伍 前驅而進退”;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故事本末 「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丙子年 十二月)十四日夜雨雪 賊兵已到畿甸 長湍府使黃稷 猝然相遇 與軍兵盡被搶擄 削髮編伍 著胡服前驅【日月錄】”.

92) 『春坡堂日月錄』(李星齡: 1632~?), 『병자록』(나만갑), 『난리잡기』(남급), 『菊堂俳語』(鄭泰齊), 『(亂中)雜錄』(趙慶男: 1570~1641), 『翠軒疏箋』(俞伯曾: 1587~1646), 『明谷集』(崔錫鼎: 1646~1715), 『遲川行狀』(崔錫鼎) 등.

93)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다른 병자호란 관련 기록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94) 趙慶男, 『(亂中)雜錄』丙子年 12월 14일 “申時西方兩日并出”; 李星齡, 『春坡堂日月錄』丙子年 12월 16일 “申時兩日出於西方”: 필자가 훑어본 바로 『춘파당일월록』의 서사는 『(난중)잡록』의 기록을 거의 베끼다시피 많이 의존하였다.

의 講和 교섭, 斥和派이 발언이나 행적 등은 대폭 생략되어 요지만 파악할 수 있다. 강화도의 합락 과정, 삼전도 降禮 장면 등도 몇 줄로 정리하였다.⁹⁵⁾ 반면, 농성군과 근왕군의 전투 상황 등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서술되었다. 아래 제시된 것처럼, 인조의 祈晴祭 시행 장면을 비롯한 성 안팎의 상세한 情況 묘사는 정보의 질과 양이라는 측면에서 『병자록』 등의 私撰 기록은 물론 『仁祖實錄』 등의 다른 기록을 능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세 사료를 비교하여 보면, 홍경모 기록이 인조의 愛民 정신과 君王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를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같다.

24일, 새벽에 上이 望闕禮를 행하였다. 이때 눈비가 크게 내려 城堞을 지키는 군졸들이 모두 비에 젖었다. 上이 “氷雪이 이와 같으니 군민들이 장차 다 죽겠구나.”라고 하였다. 李景曾이 重臣을 보내어 날이 개이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을 청하였다. 上이 “내가 직접 露天에서 지내는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世子를 거느리고 行宮의 뜰에서 露禱를 지냈다. 香을 사르고 四拜한 다음 거적을 깔고 앉아 “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 믿는 것은 하늘뿐이었는데, 눈비가 이렇게 내려 형세가 장차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내 한 봄이야 아까울 것이 없지만, 百官과 萬百姓이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던 말입니까? 원컨대, 다소 개이게 하시어 우리 군민들을 살려주소서!”라고 기원하였다. 그대로 땅에 엎드린 채 얼마 동안을 통곡하니, 御衣가 다 젖었다. 近臣이 일어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大臣이 옷자락을 당기면서 울며 청하니, 상이 한참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사배하고 물러나는데, 눈물이 두 뺨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將士들이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또 개이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행하였다. 上이 입고 있던 가죽옷과 텔 이불을 벗어 조각조각 끊어 다음 城堞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나누어주니, 三軍이 모두 감격하여 구차하게 살려는 생각을 잊었다....⁹⁶⁾

비가 멎지 않아, 성 위에서 지키는 군사들이 죄다 비에 젖어 얼어 죽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전하께서는 세자와 함께 한 데에 나와 서시어 하늘에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저희 부자가 죄를 지은 때문입니다. 성 안의 군사나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

95) 洪敬謨, 『重訂南漢志』, 「城史」“(丁丑年 一月)二十二日…是日江都失守”: “(丁丑年 一月)三十日 上命右議政李弘胄守城 與世子從西門出如清陣 約成”.

96) 洪敬謨, 『重訂南漢志』, 「城史」 병자년 12월 24일.

니까? 하늘이 재앙을 내리시거든 저희 부자에게 내리시고, 모든 백성을 살려주소서!”라고 기원하였다. 말씀이 흐트러지고 눈물이 흐르시어 웃이 다 젖었다.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 들판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를 지내서야 비가 멎어 밤중에 하늘의 銀河水가 설명했다. 그리고 날씨도 그다지 차지 않아 온 성 안의 모든 사람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성을 지키는 군사들 중에 끝끝내 딴 마음을 가지는 자가 없었음은, 실로 聖上께서 하늘에 祝願하심에 감동한 때문이니, 聖意가 사람의 마음속에 이처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⁷⁾

이때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으니, 상이 世子와 承旨와 史官을 거느리고 後苑에서 날씨가 개이기를 벌였다. 香을 사르고 四拜하고 “이 고립된 성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하늘뿐인데, 찬 비가 갑자기 내려 모두 흠뻑 젖었으니 끝내는 반드시 열어 죽고 말 것입니다. 내 한 몸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지만 백관과 만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날을 개게 하여 우리 신민을 살려 주소서!”라고 기원하였다. 그대로 땅에 엎드려 통곡하였다. 울면서 기도하는 사이에 御衣가 다 젖었는데도 그만두지 않았다. 승지가 나아가서 안으로 들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자, 檢閱 儉撤이 밖으로 나와 大臣을 청하였다. 대신과 여러 재상이 안으로 들어가 班列대로 서서 모시고서 잠시 물러가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나 上이 여전히 따르지 않았다.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려 웃깃을 적시지 않는 자가 없었다. 金鑾가 어의를 잡아당기며 일어나기를 청하니, 상이 잠시 뒤에 일어나 四拜하고 물러 나왔다. 인하여 城隍堂에 重臣을 보내어 날씨가 개이기를 벌게 하니, 예조 판서 金尙憲이 獻官으로서 命에 응하여 갔다. 上이 기둥 밖에 짚자리를 깔고 앉아 있다가 어두워지자 寢殿으로 돌아왔다.⁹⁸⁾

다른 병자호란 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전쟁을 총 지휘한 都體察使 김류의 무능과 비겁을 강조하였다. 沈悅, 최명길, 김류 등 주화론자들에 대한 적대적 반응도 생략없이 明記해 놓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패전의 책임을 김류에게 돌리는 것은 은연중에 인조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체찰사 김류가 “오랑캐가 만약 깊이 들어온다면 도원수와 兩西의 方伯에게 軍律을 시행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왕이 “체찰사에게 또한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下敎하였다. 김류는 일찍이 척화를 주장하였는데, 이 하교를 받든 뒤에는 도리어 척화를 주장하여 최명길의 논의에 붙었다.⁹⁹⁾

97) 羅萬甲, 『丙子錄』 「急報以後日錄」 병자년 12월 24일.

98)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2월 甲午(24일).

심열이 箭子를 올려 회유하는 계책을 하도록 청하니, 朝廷이 크게 격분하여 마침내 그 상소문을 불살라 버렸다.¹⁰⁰⁾

저녁에 죄명길이 김류와 입대하여 國書에 신하라는 호칭을 쓸 것을 왕에게 권하니, 이조 참판 정온이 상소하여 죄명길 등의 賣國罪를 통렬히 배척하였다.¹⁰¹⁾ 「節義」 항목에는 「城史」에 생략된 김상현, 정온, 흥익한, 윤집, 오달제의 斥和 행적을 상세히 적어 놓았다. 김상현만 제외하고, 나머지 4인이 척화를 주제로 지은 詩와 이들에 대한 행적을 찬양한 詩를 함께 수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題詠」 항목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 책의 「人物」 항목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록 인물과 연관된 詩를 간간이 기록해 놓았다. 위 5인에 대한 부정적 기록¹⁰²⁾은 이형상의 『강도지』와 마찬가지로 「節義」 항목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 말미에 홍경모는 5인 가운데 오달제만이 광주의 경내에 거주하였지만, 그들의 절개와 현재 顯節祠에서 지내는 祭享을 감안하여 수록하였노라고 附記하였다. 참고로 그는 병자호란 직전 청 태종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 강제로 참여하였다가, 목숨을 걸고 拜禮를 올리지 않은 羅德憲의 傳을 짓기도 하였다.¹⁰³⁾

「逸事」는 廣州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神異한 이야기나 正史에 수록되지 않은 野史 등을 채집하여 수록한 항목으로, 아래 표에서 보이듯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99) 洪敬謨, 『重訂南漢志』, 「城史」 병자년 12월 기사 시작 부분.

100) 洪敬謨, 『重訂南漢志』, 「城史」 병자년 12월 21일.

101) 洪敬謨, 『重訂南漢志』, 「城史」 정축년 1월 19일.

102) 예컨대, 출성 항복시 자신을 수행하지 않은 김상현에 대한 인조의 불만 등(『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戊辰(28일) “禮曹判書金尙憲 亦累日絕食 至是自縊 爲子所救解 得不死 聞者莫不驚歎 【史臣曰 綱常節義 賴此二人而扶植 忌之者 以棄君負國目之 其無天哉】”; 『仁祖實錄』 권35, 인조 15년 9월 辛未(6일) “上曰 今日國事之至此者 皆由是非之不明也 平日官榮祿厚 未聞有去者 及至危亡 爭先棄予 孰謂東方爲禮義之國乎 金尙憲平日有國亂同死之言 予亦以爲然 及至今日 乃先棄予 爲年少無識者之倡 予甚惜之 鳴吉曰 有識之人 皆知尙憲處心 而年少輩 多有慕效者矣 上曰 其欺君甚矣”).

103) 李君善, 2010, 「洪敬謨「羅德憲傳」分析」, 『東方漢文學』 45 참조.

구분	인물 또는 사건	내용
1	廣州의 胥吏 李唐의 아들인 李集	고려말 儒臣 李集의 행적과 節操. 이집이 任士洪 父子의 誣告로 인하여 조선에 出仕하였다는 잘못된 기록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연유.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수정된 경위.
2	朴彭年	朴彭年이 광주에 農地를 매입하였다가 되 판 일화.
3	靖陵의 守護軍 李雲龍	靖陵의 守護軍인 李雲龍이 임란 때 위험을 무릅쓰고 능을 보살핀 행적.
4	선비 魯協과 어떤 武人, 東萊府使 盧協과 朴震龜	남한산 아래 거주하던 선비 魯協이 남한산성의 항복과 無事を 예언한 어떤 武人을 만난 첫 번째 이야기. 魯協이 아니라 東萊府使를 자낸 盧協이고, 무인은 金壘의 軍官인 朴震龜임. 乙亥年(1635)에 세상을 떠난 박진귀가 남한산성의 항복을 예언하였다는 두 번째 이야기.
5	인조의 御乘馬	병자호란 발발 후 강화도로 파천하려는 인조를 태운 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 부득이 방향을 수정함. 이후 交河와 陽川 등지에 청군이 배복되어 있었음을 듣고 하늘의 뜻임을 앎.
6	溫祖王	인조의 꿈에 나타나 청군의 攻城 시도를 알려준 溫祖王. 還都 後 온조의 사당을 건립한 인조.
7	李時白과 金壘	수어사 이시백과 채찰사 김류의 불화. 남한산성의 방비가 허술하다는 인조의 下問에 김류가 자신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이시백. 이에 불만을 품은 김류가 이시백을 다른 일을 핑계로 곤장을 때렸으나 불평하지 않음.
8	守禦使 이시백	수어사 이시백이 甲冑를 입지 않고 군사들을 독려하며 분전하다가 두 대의 화살을 맞음. 군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은 이시백.
9	李署	식량과 軍器 등을 미리 준비한 수어사 이서의 꼼꼼한 일처리.
10	徐欽男	남한산성 동성 당시 목숨을 걸고 성을 나가 인조의 諭書를 전한 서흔남.
11	孟元賓	孟思誠의 8세손인 孟元賓이 中臺에 거주. 그가 병조호란 당시 入城에 어려움을 겪는 인조에게 말을 바침.
12	이시백의 군관과 명의 李後聖	이시백의 軍官이 汗峰에 오른 清王을 筒兒細箭으로 사살함. 나중에 알고 보니 청왕의 妹夫였음. 講和 후 청에서 名醫를 청하여 李厚聖을 파견. 이후성이 四肢가 마비되고 온 몸이 부어오른 청왕의 누이동생을 치료하였음. 그녀가 바로 남한산성에서 격살된 청왕 매부의 부인이었음.

위 표의 4~12번에 해당하는 항목이 병자호란과 관련된 것인데, 그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城史」나 「人物」 등의 항목에 게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야기들이 다수 실렸다. 예를 들어, 4,5,6번의 이야기는 神異性이 매우 두드러지는 일화이다. 물론 5번과 유사한 맥락의 일화는 병자호란 관련 기록에도 가끔 나오지만,¹⁰⁴⁾ 나머지 기록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2번의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병자호란 당시 사살된 揚吉利는 흥타이지가 아니라 누르하치의 사위였다. 더욱이, 그는 汗峰이 아니라 남한산성 인근 光敎山에서 접전 중에 조선군이 쏜 烏銃을 맞고 戰死하였다.¹⁰⁵⁾ 그와 접전한 부대도 전라병사 金俊龍이 지휘한 전라도 勤王軍이었다. 이후성이란 醫官의 파견 자체도 『인조실록』을 비롯해 『瀋陽狀啓』, 『瀋陽日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일화는 양고리의 射殺을 모티프로 하여 흥타이지의 격살까지 발전·상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병자호란이란 미증유의 대 전란을 나름대로 이해하여 치유하려는 의식의 산물로 보인다.

10, 11번에 수록된 서흔남과 맹원빈은 실존한 인물이었지만, 「人物」 등의 항목에 기재하기에는 신분이 미천하거나 행적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逸事」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서흔남은 김훈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에 등장하는 대장장이 서날 쇠의 실존 모델이기도 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다른 관련 기록에서는 간단하게만 언급된 서흔남¹⁰⁶⁾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일사」에는 상당한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풍부한 내용은 廣州 일대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서흔남의 행적을 빠짐없이 채취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지역사로서의 邑誌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104) 羅萬甲, 『丙子錄』「急報以後日錄」, 병자년 12월 30일 “土無鬪志 行宮近處 南鵠結巢 人皆瞻望 占以爲吉 城中所恃者 只此而已 可想其時危迫之狀矣”;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26, 仁祖朝故事本末 「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 “二更始入南漢 上前先導者 只五六人 幾到城南門 有野嶺橫走越路 一黃門曰 殿下未久還都 頃向公州 亦有此異【亂離雜記】”.

105) 柳在城, 1986, 앞의 책, 203-205면 참조.

106)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丁未(7일) “城中居徐欣男及僧人斗清 應募出去 持都元帥金自點黃海兵使李碩達 全羅監司李時昉狀啓而來”.

서흔남이라는 사람은 牙兵의 私奴였다. 기와를 얹고 쇠를 담금질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는데, 무뢰하고 교활하며 방탕하고 行檢이 없었다. 박수 노릇을 하기도 하고 장사꾼 노릇을 하기도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겼다.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안팎으로 소식을 통하기가 어려웠다. 體府에서 연락할 사람을 모집했지만 응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서흔남이 지원하였다. 諭書를 지니고 나가 누더기 옷을 입고는, 諭旨를 재단해 찢어 순서를 표시하여 끈으로 꼰 뒤 이것으로 옷과 바지를 얹어매었다. 蓬頭亂髮에 덕지덕지 때 낀 얼굴로 손에 깨진 바가지 하나를 들고는 줄을 타고 성을 내려가 적진으로 들어갔다.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구걸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노란 日傘을 펴놓고 셋조각 위에 앉아 솟으로 그 밑을 테우고 있었는데, 그는 필시 청나라 왕이었다. 그가 구걸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서흔남에게 밥을 주었는데 손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입으로 먹고 앉은 자리에서 똥을 싸니, 적은 더욱 의심하지 않았다. 이윽고 무릎으로 걸어 앞으로 전진해 적진으로부터 조금 멀어지자 일어나 쏜살같이 달려, 드디어 三南과 강원도에 명을 전달하였다....¹⁰⁷⁾

위 내용의 반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극한 순간에 보인 하충민의 忠節을 강조하려는 홍경모의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청왕을 직접 보았다는 부분은 사실이라기보다 그의 영웅적 활약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생각된다. 자료의 원천이 지역의 傳聞에 근거한 소산으로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逸事」에 등장한 흡사한 내용이 정조의 남한산성 幸行 기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上이 “…병자호란 때로 말하면 서흔남은 私奴에 지나지 않는데 虜兵이 세 겹으로 에워 쌌을 때에 홀몸으로 빠져나가 능히 三南의 여러 道에 명을 전하였고, 맹원빈은 한낱 閑散일 뿐인데 聖祖께서 行幸하셨을 때에 제 말을 바치기를 청하여 무사히 입성 하실 수 있게 하였다…요즈음에도 鄉黨에서 異行과 奇才로 이름난 자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徐命膺이 “臣이 本州의 邑誌를 보니, 병자란 이전에 魯協이라는 자가 이곳에서 한 異人을 만났는데 능히 병자호란을 예견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세상에서 모든 가운데에 어찌 뛰어난 인재가 없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上이 “그때 昇平府院君 김류의 군관 박진귀가 일찍이 한 나무 거북을 김유에게 바치며 이것을 쓰면 一面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김류가 오활하고 괴이하다고 생각하여 물리쳤다. 대개 박진귀는 그것으로 스스로 비유한 것인데, 당시 사람이 모르고서 병자년에 수용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서명웅이 “신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대개 또한 異人입니다.”라고 아뢰었다.¹⁰⁸⁾

107) 洪敬謨, 『重訂南漢志』, 「逸事」.

「逸事」에 수록된 맹원빈, 서흔남, 노협, 박진귀 등이 유사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사」와 유사한 원천 기록을 정조와 당시 守禦使로 재직중이던 서명웅이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성이 높다. 이 대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서명웅이 바로 『중정남한지』의 母本이라 할 수 있는 『南城志』의 저자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일사」에 수록된 내용은 서명웅이 미리 정리해 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이미 앞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일사」에 수록된 이야기는 사실과 허구(또는 전문)이 적절히 錯綜된 서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6번의 이야기는 『인조실록』 등의 공식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인조는 농성 당시 온조에게 두 차례 제사를 지냈지만, 이것은 온조의 現夢 때문이 아니라 신하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¹⁰⁹⁾ 온조의 사당 역시 인조 3년(1625) 남한산성을 중축하는 즈음에 건립된 것이다.¹¹⁰⁾ 따라서, 이 일화는 남한산성 당시의 온조 致祭를 모티프로 하여 지역민들에 의해 창작된 허구로 보인다. 5번 인조의 어승마 이야기 역시 농성 당시의 사실에 근거하여 창작된 이야기로 보인다.¹¹¹⁾

마지막으로, 7번에 수록된 이시백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다. 이시백이 곤장을 맞은 것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지만,¹¹²⁾ 그것이 김류와의 不和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불화와 관련된 내용이 여러 사유로 적대적이었던 나만갑¹¹³⁾의 『병자록』에서 발췌된 것으로 보이므로,¹¹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8번에 수록된 이시

108) 『正祖實錄』 권8, 정조 3년 8월 戊午(7일).

109)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2월 乙未(25일) “禮曹啓曰 溫祚定都於此 歷年最久 必有其神 而古人行師駐軍 必祭其地之神 今者大駕臨駐 而城隍祀典 既已舉行 致祭溫祚 似不可已” 上從之”;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戊申(8일).

1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崇烈殿」 항목 참조. 다만 숭열전이란 명칭은 정조 때 下賜된 것이다(『正祖實錄』 권43, 정조 19년 9월 丙寅(18일) 참조).

111)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12월 乙酉(15일) “大駕曉發山城 將向江都 時雪風甚緊 山路乃舍 馬不得着足 上冰滑馬步行 度其終不得達 遂還入城”

112) 南磯, 『南漢日記』 병자년 12월 16일.

113) 허태구, 2011, 앞의 논문, 101-107면 참조.

114) 羅萬甲, 『丙子錄』 「記初頭委節」 “李時白 時爲南漢山城守禦使 時白之父貴 詧與金瑬不相能 凡南漢守禦之備 一不從其請 守堞之卒 皆以嶺南之軍分定 若有警急 遠地之人 何得以急

백의 奮戰과 군사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인품은 공식 기록에도 전하므로,¹¹⁵⁾ 사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말미에 첨가된 尹穴, 鄭穴, 崔穴 등의 이야기는 나만감의 『병자록』에서 轉載한 것으로서,¹¹⁶⁾ 사실이라기보다 尹昉, 鄭命壽, 崔鳴吉 등에 대한 당시 사대부의 적대적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이후 패전의 책임이 김류, 김자점 등의 무능과 비겁으로만 歸結된 반면, 남한산성에서 분전한 이시백은 대척점의 인물상으로 士·民에 의해 기억된 것이다. 송시열을 지지한 그의 정치적 입장도 남한산성의 분전과 함께 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¹¹⁷⁾ 이시백의 아버지 李貴가 병자호란 당시 최명길과 같이 주화론을 적극 주장하여 秦檜와 다름없다는 비난까지 받았던 것¹¹⁸⁾을 감안하면 다소 역설적인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題詠」 항목에는 御製詩, 廢詩, 致祭文, 下敎, 編音, 詩, 記文 등이 실려 있다.¹¹⁹⁾ 어제시는 남한산성에 行幸한 숙종과 정조의 것이다. 갱시는 홍경모의 할아버지 洪良浩가 지은 것을 실었다. 치제문은 온조왕의 사당인 「崇烈殿致祭文」이다. 이어서 「守撫兩營釐革義僧番錢敎」와 「守禦京廳出陣南漢山城編音」이 실려 있다. 어제시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詩나 記文의 소재가 되는 남한산성의 승경이나 유적중 상당수가 병자호란과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의 기억과 감회는 「題詠」에 수록된 詩文의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병자호란의 기억을 소재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金錫胄, 洪良浩, 金萬基, 李箕鎮, 尹宣擧, 宋時烈, 沈象奎, 金履喬, 李晚秀 등이 지은 시와 기문이 「題詠」 항목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來乎”.

115) 『仁祖實錄』 권34, 인조 15년 1월 癸亥(23일).

116) 羅萬甲, 『丙子錄』『急報以後日錄』 정축년 1월 23일.

117) 『顯宗實錄』 권2, 현종 1년 5월 丙辰(2일) “延陽府院君李時白卒 時白無他才能 且乏相業 而其清白忠慎一節 非一時在相位諸人之所及也…然時白不學無術 推許宋時烈宋浚吉等 至以 伊傅周召 稱之於疏箚中 水原山陵之議 力主不可用之論 其意蓋在附會時烈 人以此疵之”.

118)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丁未(10일).

119) 洪敬謨, 『重訂南漢志』, 「題詠」.

4. 맷음말

본고는 이상과 같이 이형상의 『강도지』와 홍경모의 『중정남한지』에 수록된 병자호란 관련 기록의 특징과 성격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화 유수 민진주의 권유를 받은 이형상은 강화도의 인문지리 정보를 집대성하는 한편, 병자호란이란 역사의 현장이자 保障處로서 강화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강도지』를 저술하였다. 따라서, 군사,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강화도 관련 읍지에 비해 풍부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그는 미 버클리대 소장본 계열의 『강도록』을 주로 참고하여 『강도지』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을 정리하였다.

『강도지』는 다른 병자호란 관련 자료와 달리 강화도를 중심에 놓고 전쟁의 始末을 서술하였으므로, 남한산성 농성 당시 君臣 간의 논의나 조·청 간의 교섭 등과 관련된 내용은 소략하다. 반면, 강화도에 피난 온 여러 신료와 사대부들의 행적, 강화도에 함락 당시의 戰況과 殉節 등에 대한 기록은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김류·김경징 부자에 대한 평가는 당시 척화론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소현세자빈 강씨, 봉림대군, 강석기 등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행적은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이형상이 제안한 강화도 守禦策의 일부는 실현 가능성성이 희박한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홍경모는 본인의 역사지리적 관심, 광주 유수로서의 재임 경험이 계기가 되어 『남한중정지』를 편찬하였다. 서명웅이 편찬하다 중지한 『남성지』를 모본으로 하여 여러 자료를 보완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다. 특히 병자호란 관련 기록이 집중 수록된 「城史」 항목은 『연려실기술』과 여기에 인용된 여러 사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城史」의 병자호란 관련 기록은 남한산성이란 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병자호란의 여러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관찬 사료와는 달리 조정의 상세한 논의와 대응, 조·청 간의 교섭 내용 등을 대폭 생략하였다. 척화파의 행적과 발언도 대폭 생략되어 있지만, 「절의」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반면,

농성군의 전투 상황, 성 안팎의 상세한 정황 등을 가능한 풍부하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김류와 주화파에 대해서는 다른 병자호란 관련 기록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逸事」에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다소 믿기 어려운 민간의 이야기가 상당수 채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려는 士·民의 심리,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 등이 담겨 있다. 「題詠」 항목에는 어제시, 치제문, 사대부의 시문과 기문 등이 실려 있는데, 상당수가 병자호란을 모티프로 지어진 작품들이었다. 향후 「일사」와 「제영」에 수록된 작품들을 문학적 방법론으로 본격 분석한다면, 당대인의 병자호란 인식이나 기억의 전승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18. 5. 11), 심사일(2018. 5. 21), 게재확정일(2018. 6. 7)

참고문헌

1. 자료

- 李衡祥(1653~1733), 『瓶窩全書』 전10권(1980~198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_____, 『(國譯) 瓶窩集』 전3권(鄭太鉉 · 車柱環 · 柳正東 번역, 199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_____, 『譯註 江都志』 전2권(임학성 외 7인 번역 · 역주, 2015, 인천역 사문화총서7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 洪敬謨(1774~1851), 『重訂南漢志』(金柄憲 · 李義康 國譯, 1990, 廣州市 廣州文化院)
 南礪(1592~1671), 『南漢日記』(申海鎮 역주, 2012, 보고사)
 羅萬甲(1592~1642), 『丙子錄』(尹在瑛 譯, 1985, 韓國自由教養推進會)
 李星齡(1632~?), 『春坡堂日月錄』(古4250-2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石之珩(1610~?), 『南漢日記』(奎 43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http://kostma.korea.ac.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http://sillok.history.go.k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리지종합정보(<http://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main.jsp>)

2. 논저

-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權寧徹, 1978, 『瓶窩李衡祥研究』, 韓國研究院.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소설사연구반, 2013,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운명: 17세기 소설사』, 소명출판.
 우경섭, 2013,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柳在城, 1986, 『丙子胡亂史』,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이종목 편, 2011,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이종필, 2017, 『조선 중기의 전쟁과 고소설의 기억』, 소명출판.
 정옥자, 2010,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강석화, 2011, 「홍경모(洪敬謨)의 학문과 사상」,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구지현, 2015, 「이형상의 일본 지리지 『東耳散略』 연구」, 『인문과학연구』 44,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남일, 2015, 「병자호란 시기 『승정원일기』의 전거 자료 『남한일기』 연구-개수본 『승정원일기』와 『남한일기』·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비교-」, 『韓國史學史學報』 32, 한국사학사학회.
- 김문식, 2012, 「조선후기 국왕의 南漢山城 행차」, 『朝鮮時代史學報』 60, 조선시대사학회.
- 金容傑, 1993, 「瓶窩 李衡祥의 哲學思想」, 『韓國思想家의 새로운 發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노영구, 2014, 「17~18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조선의 도성 수비체제 이해의 방향」, 『朝鮮時代史學報』 71, 조선시대사학회.
- 朴珉徹, 2011, 「瓶窩 李衡祥의 著述과 家藏 文獻의 書誌的 分析」, 경북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인원, 2010, 「冠巖 洪敬謨의 歷史·地理 認識」, 『韓國人物史研究』 14, 한국인물사연구회.
- 손성필, 2014, 「『북새기략』의 편찬 경위와 편찬자 문제」, 『民族文化』 43, 한국고전번역원.
- 양보경, 1983, 「16-17世紀 邑誌의 編纂背景과 그 性格」, 『地理學』 27, 대한지리학회.
- _____, 1997, 「조선시대 읍지의 체재와 특징」, 『인문과학논집』 4, 강남대학교.
- 오세운, 「瓶窩全書 江都志 解題」(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main.jsp>).
- 柳承宙, 2002, 「丙子胡亂의 戰況과 金化戰鬪 一考」, 『史叢』 55, 고려대학교 사학회.
- 李君善, 2010, 「洪敬謨「羅德憲傳」分析」, 『東方漢文學』 45, 동방한문학회.
- 李敏雄, 1995, 「18세기 江華島 守備體制의 強化」,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석사학위논문.
- 이상규, 「『四夷總說』解설」(디지털영천문화대전 <http://yeongcheon.grandculture.net>).
- 이창숙, 2011, 「관암 홍경모의 중국 체험과 인식」,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 장유승, 2010, 「홍경모의 생애와 저술-『관암전서(冠巖全書)』를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52, 문헌과 해석사.
- 池教憲, 1993, 「瓶窩 李衡祥의 倫理思想」, 『韓國思想家의 새로운 發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허태구, 2011, 「丙子胡亂 江華島 합락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金慶徵 패전책임론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113, 진단학회.
- _____, 2012, 「仁祖代 對後金(對清)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守城 전술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1, 조선시대사학회.
- _____, 2015, 「丙子胡亂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胡亂期 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奎章閣』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bstract

A Review on the Records related to the Byeongja
Horan(丙子胡亂) in *Gangdoji*(『江都志』) and
ungjeongnamhanji(『重訂南漢志』)

Huh, Tae koo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related to the Byeongja Horan(丙子胡亂) in *Gangdoji*(『江都志』) and *ungjeongnamhanji*(『重訂南漢志』). Lee Hyeong-sang(李衡祥) wrote this book to collect information on Ganghwado(江華島)'s cultural geography and to emphasize its military importance as a base for defense. Therefore, this book is very rich on military and financial topics. He used *Gangdrok*(『江都錄』) in the University of Berkeley as a source material to compile records related to the Byeongja Horan. The evaluation of Kim Ryu(金壘) and Kim Gyeong-jing(金慶徵) followed the general perception of Cheokhwa-pa(斥和派) at the time. Compared to other related records, this book contains an abundance of information about the war situation and martyrdom before and after the fall of Gwanghwado. The book does not detail the activities that would be criticized by royalty or royal figures. Some of Ganghwado defenses proposed by Lee Hyeong-sang were merely ideas that were not feasible.

Hong Gyeong-mo(洪敬謨) wrote *Jungjeongnamhanji* based on his historical geography and experience as a Gwangjoo Yusoo(廣州留守). The chapter of Seongsa(城史), which focuses on the Records related to the Byeongja Horan, describes *Yeollyeosilgisul*(『燃藜室記述』) and its cite as source materials. The chapter of Seongsa's records related to the Byeongja Horan gave a detailed view of the events of the war surrounding the stage of Namhansansung(南漢山城). However, this chapter, in contrast to the other official sources, omitted the detailed discussion and corresponde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negotiation between the Joseon and Qing Dynasties. On the other hand, this chapter described as

much as possible the combat situation of the besieged army,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of the castle, and the king Injo(仁祖)'s attitude of loving the common people. He made a negative assessment of Juhwa-pa(主和派) including Kim Ryu, as well as another records related to the Byeongja Horan.

Key words : Byeongja Horan(丙子胡亂), Lee Hyeong-sang(李衡祥), *Gangdoji*(『江都志』), Hong Gyeong-mo(洪敬謨), *Jungjeongnamhanji*(『重訂南漢志』), source materials